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정이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소망이 샘솟게 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해가 되기 원하오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닮기 위한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설 가정예배

▷ 가정예배를 위하여 ◁

명절 가정예배는 단순히 과거에 조상에게 드렸던 전통적인 제사를 대체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낳고 길러준 조상을 기억하되, 영생의 복과 은혜를 가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멀지 않은 날 하나님 앞에 서야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온 가족이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예배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배 순 서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55장 다 같 이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못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 도 가 족 중
 말씀봉독 엡 4:15 (신약 313쪽) 사 회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니 곧 그리스도라

말 씬 가족대표
 기 도 가족대표
 주기도문 다 같 이

말 씬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저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대부분 더 좋아지는 것,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오히려 나빠집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자라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올 한해 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닮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야 닮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됩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2.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갑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고 신앙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3.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든 닮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일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참된 것을 할 때 아주 더디지만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낼 사람,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는 것에 두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